

전남도, 인간·자연 조화로운 ‘미래도시 솔라시도’ 조성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건설 박차

구성·삼호·삼포 3개 지구 자연환경과 조화

전남도는 코로나19 등 불확실한 시대에 대비해 사람과 자연, 환경이 조화된 미래도시를 서남해안에 건설한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솔라시도’가 미래도시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성·삼호·삼포지구로 이뤄진 솔라시도는

지난 2010년 개발계획 승인 후 기업도시 개발 사업의 최대 난제인 공유수면 토지화를 2018년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도시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현재 구성지구는 스마트 블루시티 여건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이 구축되고 있으며, 국내 최대 규모 태양광발전소(98MW, 158만9000㎡)

와 선가든이 올해 준공됐다.

또 내년 초 준공 예정인 골프장(18홀) 주변에 11만평의 주거단지과 15만평 규모의 ‘산이정원’을 조성 중이다.

주민 소득보장형 주택 500세대가 올해 말 분양계획을 확정할 예정이고, 태양광에너지를 활용한 산업단지도 조성해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구축한다.

삼호지구에는 자연친화적 생태환경을 비롯한 독창성 및 개성이 확보된 63홀 골프장을 조성하며, 프로골퍼들의 전지훈련과 프로 지방생 중장기 연수 전문교육 등을 수행할 골프퍼

닝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삼포지구는 세계인의 스피드 축제인 ‘F1 Korean Grand Prix’가 열린 국내 최고 F1 국제자동차 경주장을 활용한 모터스포츠 행사가 연중 개최되고 있다.

지난 2016년 준공한 고성능 자동차 핵심기술 연구센터에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입주해 튜닝 및 미래형 자동차 산업육성에 2606억원(국비 1324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전남도는 2993억원을 투자해 기업도시 진입도로(연장 10.83km)도 건설 중이다.

해남 산이에서 영암호를 건너 남해안고속도

로 서호 IC까지 연결될 4차선 도로로, 영암호를 지나는 다리위에 아름다움이 돋보일 대형 데크아치가 설치돼 솔라시도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형열 전남도 기업도시담당관은 “도시 문제는 도시가 풀어야 한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도시가 임태한 문제들로, 결국 도시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며 “솔라시도는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 저출산·고령화, 인간 소외 현상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꼽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가을 수확했어요” 지난 17일 오전 광주 북구 한새농업생태공원 개구리논에서 주민들이 벼 베기를 하고 있다.



화순백신산업특구, 체외진단 의료기기 기업 투자유치 협약 (쥬메디클라우드 30억원 투자)

화순군은 20일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생물 의약센터와 공동으로 체외진단 의료기기 제조 기업인 쥬메디클라우드와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쥬메디클라우드(대표 김병양)는 유전자 분석 기반 질병 예측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맞춤형 데이터 정보 제공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다. 최근 중국과 일본 시장에 진출했다.

이번 투자협약에 따라 쥬메디클라우드는 30억원을 투자해 생물의약품연구센터 내에 의료기기 제조 GMP 시설을 구축하고 분자 진단 기반 코로나19 진단 키트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화순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정밀 의료와 유전체 분자 진단 분야의 사업 확대를 통해 화순백신산업특구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생물의약품연구센터와 함께 쥬메디클라우드의 분자 진단 기반 체외진단 키트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화순백신산업특구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억대 부농의 꿈, 무안군이 지원합니다”

2020 귀농산어촌 박람회 참가 ... 1:1 귀농상담·지원정책 안내

무안군은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비대면으로 개최되는 2020 더농부 귀농산어촌 온라인 박람회에 참가한다.

더농부 귀농산어촌 온라인 박람회는 귀농산

어촌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전문가의 1:1 상담과 강연,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지자체 귀농지원정책 등을 안내하는 행사로써 예비 귀농인들은 박람회에 참여하여 최신 농업 트랜

드를 파악하고 고소득 창출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무안군은 이번 박람회에 참가하여 1:1 맞춤형 귀농 상담과 온라인 홍보 전시와 함께 무안군의 귀농 지원정책 사업을 적극 알릴 예정이다.

성악가에서 유기농 고구마 농부로 변신한 청계 한사랑농원 대표 한영만씨는 대표적인 무안의 귀농 성공사례로 꼽힌다.

그는 농사경험이 없었지만 이웃들의 도움

과 군 농업기술센터의 다양한 지원으로 연 1억 5000만원의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었다.

군 관계자는 “귀농인들이 무안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면서 “농산어촌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사전예약과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귀농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에너지 스카우터
한수원